

사회

광주 상무지구 평화공원 일대

(시청사~롯데마트 앞)

‘보행우선구역’ 지정

市, 광주·전남 처음... 26억원 투입 교통체계 개선

■광주 첫 보행자 우선구역



시, 광주·전남 처음... 26억원 투입 교통체계 개선
광주시가 보행자들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해 6일 고시했다.

광주시가 보행자들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해 6일 고시했다.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구 상무지구 평화공원 일대 17만2천575㎡(시청사~롯데마트 앞)로, 이 구역에서는 보행자 위주로 교통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차량속도 규제,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보행자의 안전성 및 편의를 위한 보도폭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구역 내 보도는 폭이 2m 이상으로 넓어지고, 50m 간격으로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5m×1.5m)를 확보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 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구역은 평일 저녁(오후6시~7시) 교통량이 1만2천9대, 주말 저녁(오후7시~8시)은 1만3천33대에 이르는 교통혼잡지역이어서 시행 초기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근 조성된 상무지구 평화공원 주변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요청했다."며 "차량 운전자는 불편을 겪을 수 있겠

신호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사고 처벌 강화

광주지검

검찰이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광주지검(지검장 김태기)은 8일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신호위반 사고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소년 교통사범 등에 대해 '교통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1만명당 신호위반 사고'는 8.89건으로, 전국 평균(5.34건)을 크게 웃돌았다. 또 안전거리 미확보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가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등 교통문화 수준이 낙후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호위반·안전거리 미확보·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 등 3가지 유형의 사범에 대해 피해자 상해 1주당 30만원이던 벌금 기준

을 50만원으로 올렸다. 또 통상 8~10주 이하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하던 것을 이 유형에 한해 6주 이상의 피해가 나면 가해자를 구속 또는 불구속 공판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년 교통사범을 줄이기 위해 '교통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 뺑소니 등에 연루된 소년범의 경우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4시간의 교통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키로 한 것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주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따른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들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지법 '소통개선위' 설치

전국 법원 최초

광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광주지법(법원장 정갑주)은 8일 "재판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원 안팎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내규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수석 부장판사가 업무·직급별 대표 8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과 함께 법원 내 각 업무영역과 직급, 법원과 외부 기관 등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첫 번째 활동으로 재판지연의 고질적 원인인 신체 및 하자 감정 등 감정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와 대학병원 신체감정인, 건축하자 감정인 사이의 소통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또 법원 내부 업무영역간 문제로 지적된 경매 및 등기업무 절차의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 경매 참여관과 등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중복 공보관사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판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해남군 유치원 2·초등 4·중 1 곳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육성' 선정

해남 등 전국 9개 군 지역 38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정부의 학교통폐합 사업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 학교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해남 등 전국 9개 군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남군에는 내년까지 20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이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9개 군에 속한 총 38개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2011년 2월까지 아예 폐지되거나 인근 학교로 통합된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해남의 경우 해남동초 병설유치원, 해남서초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곳과 군곡초, 옥동초, 문내초, 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곳, 옥전중 등 총 7곳이 통폐합된다. 병설 유치원 2곳은 단설 유치원 1곳으로 모아 신설되며, 초교 4곳과 중학교 1곳은 아예 없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시가 9일부터 연말까지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주요 단속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시내구간 ▲국지도 49호 시내구간 ▲자동차 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 ▲빛고을로 ▲무진로 등 68.6km이며,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학교 입구와 대형 할인매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weather warnings for the sea and mountains.

광신대학교 (Gwangshin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photo of students and the university's name in large characters.

반달가슴곰 복원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nseng Recovery) advertisement with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speakers.

Large advertisement for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including real estate listings and local business promotions.

Large advertisement for 'Gyochoi Travel' (교초이 여행사) featuring scenic photos and travel packages with prices.